

## 소자본 인쇄 광고 전문점 선보여 전단지만 주문해도 홈페이지가 무료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고객확보의 지름길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단지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는 것.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인쇄물 제작은 물론 온·오프라인 광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소자본 인쇄 광고 전문점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지역은 물론 전국단위까지 홍보 가능

(주)임프레스INT(대표 이희갑, www.bizpia.biz)는 최근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쇄 홍보 전문점을 위한 지역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임프레스INT는 (주)디프린팅인쇄, (주)월드프린팅, (주)한라인쇄, (주)포스트인쇄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다.

임프레스가 다른 인쇄사와 다른 점은 전단지와 같은 인쇄물 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준다는 점. 단순히 홈페이지 제작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각 업체별 홈페이지는 다시 '동별 홈페이지'라고 불리는 지역 광고 사이트에 올려지고, 이는 또 다시 전국단위 사이트에 소개된다.

이를 위해 임프레스는 이미 포털사이트인 코리아닷컴과 업무제휴를 맺은 상태다. 결국 공짜 홈페이지를 얻는 동시에 무려 '3중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희갑대표는 인쇄업계 35년 경력을 바탕으로 임프레스 INT를 이끌고 있다.

### 홈피제작부터 적립금까지 '1석 4조' 효과

임프레스INT의 영업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점과 학원의 비율이 높은 편. 자영업자가 홍보인쇄물 제작을 의뢰하면 주문을 받은 각 지시는 업종 및 제작물량 등 전반적



▼ 비즈피아 홈페이지(가운데)와 임프레스가 제작한 무료 홈페이지들

인 사항을 체크한다. 이어 협력관계에 있는 인쇄기획사의 디자이너가 업체를 방문, 디자인 및 홍보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임프레스INT는 현재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인쇄기획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접수된 인쇄물은 기획사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되며, 늦어도 이틀이면 직접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임프레스INT 본사에서는 고객의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무료 홈페이지라고 해서 구성이 허술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뉴스, 영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는 물론 개인 이메일과 고객관리 시스템 등 최소 50페이지 이상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본사에서 일주일 정도 홈페이지 제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 패밀리 카드제 운영으로 제2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인쇄물을 제작한 업체는 사업주의 동의하에 패밀리 카

드 가맹점으로 가입되고, 가게 앞에는 가맹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면 업주는 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넣어주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패밀리 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올해 안에 홈페이지 백만 개 돌파 목표

임프레스INT는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벌써 1만 3천개가 넘는 개별 홈페이지를 제작, 가동 중에 있다. 올해 안에 백만개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희갑 임프레스INT 대표는 "인쇄업계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매장을 알릴 때 주타깃으로 삼는 영업대상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에 착안,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홈페이지 보급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5개 동씩을 관리할 지역사업자 모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